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p style="text-align: right;">이제는 인천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 APEC INCHEON</p>	
		배포일자	2024년 2월 7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도시관리과	담 당 자	•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애경 ☎440-8921 • 주무관 김동민 ☎440-892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내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국비 확보에 시동

- 올해 국비 200억 확보해 스마트 경로당 등 18개 사업 추진 ... 내년 사업 발굴 본격화 -

인천시가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新)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형 스마트 서비스 발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 원·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접수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하 스마트빌리지 사업)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일 시 사업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에 국비 200억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사업과 군·구 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인천스마트시티(시 출자 ICT 전문기관)와 함께 스마트건설사업 계획과 정책 동향을 반영한 인천형 스마트서비스 18종

을 도출하고, 올해 국비로 약 200억 원을 확보해 ①광역형 사업(3개, 국비 49.5억), ②군·구 특화사업(8개, 국비 94.5억) ③군·구 공모사업(2개 예정, 국비 27.9억)을 추진하고 있다.

①광역형 사업은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인천시 스마트디자인 특구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다중이용시설 대피 유도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고, ②군·구 특화사업으로는 ▲(강화군) 보행자 복합인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옹진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중구) 율목 스마트 공원화 사업, 친환경 스마트 도로 열선시스템 구축, ▲(미추홀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수봉’ 빌리지 ▲(남동구) 원도심 스마트 휴게 공간조성,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 ▲(계양구)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이다. ③군·구 공모사업은 이달 중 공모 후 2개 군·구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에서 우리 시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큰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은 만큼 인천의 특성이 반영된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원도심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관련사진>

